

“비행기 안에는 지구에서 사용하는 산소와 다른 개념의 산소를 인공적으로 기계를 통하여 만들기 때문에 암환자들은 기내 산소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 다시 표를 예매를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생님 말씀대로 부인과 의논을 했더니 친구가 장백현(백두산 줄기)에 있어서 그곳에 집을 얻었습니다. 공기 좋고 물도 좋고...그곳에는 고구려 유적인 많아서 나중에 권 선생님 한번 방문하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곳에 선택을 하시었네요”

그리고 4일 지나서 김 목사님에게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저 지금 박목사님 부부가 1시간후에 북 역으로 도착한다고 하여 마중 나갑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저의 집에 가서 휴식을 하고 내일 오전에 병원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차 타고 3일만에 왔으니 식사부터 잘 챙겨주시고요. 체력이 회복 되는 데로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아~~~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병원 일을 마치고 김 목사님 집에 가서 저녁 밥 좀 도둑질 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김치찌개면 됩니다. 다른 반찬은 만들지 마시고요. 박 목사님 부부들만 불편 없이 챙겨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영숙씨에게는 식초 물을 타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3일간 내려오면서 몸에 누적된 젖산이 빠른 시간 내 풀려서 몸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하하하하.....어려운 반찬 주문 입니다. 일단 고기는 저의 집에 없습니다. 환자가 오기에 저의 부부도 당분간 고기를 밥상에서 치우기로 했습니다. 상추쌈에 된장찌개 입니다.”

“하하하...아주 좋아합니다”

“저녁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되면서 치료용 물건을 챙겨 들기 시작 했다. 먼저 환자 보기 전에